

1989년도 주요업무보고

# 人類共榮의 世界실현을 목표

-세계의 경쟁과 도전을 극복하고 21세기에 주도적으로 예비

## 科學技術處

우리나라의 종전까지의 시대는 경제의 양적성장과 수출증대를 위한 資本의 時代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는 국제수지흑자의 정착과 저축율향상등으로 이러한 자본력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하겠다.

앞으로의 시대는 경제의 질적성장과 사회복지를 위한 科學技術의 時代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자본력 중심에서 기술중심으로 이행하면서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한 국가간 경쟁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성패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과학기술수준을 보면, 생산·제조기술은 이제 선진국수준에 거의 접근하였으나 첨단·원천기술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첨단·원천기술을 주축으로 우리의

과학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세계의 경쟁과 도전을 극복하고 커다란 변혁의 21세기를 주도적으로 豫備해 나가는 것이다.

### 기본방향과 중점추진사업

科技處가 수행할 업무의 기본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처럼 창조적 과학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첫째, 「창의력이 뛰어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大學중심의 기초연구 활성화와 고급연구인력양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둘째로 「미래를 개척하는 민족」이 되기 위하여 10년 앞을 내다보는 國策연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21세기 주역인 청소년의 창조정신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셋째로 「보통사람이 잘 사는 社會」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체 기업의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에 주력함과 아울러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 복리기술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네째로 「人類共榮을 추구하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외마찰 해소와 北方政策을 지원할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우주첨단기술올림픽(SPACE TECHNO-OLYMPIC)」의 개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섯째로 안정성장·복지사회·화합경제·균형발전을 위하여 전국토의 「기술지대망(TECHNO-BELT)」사업을 구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創意力이 뛰어난 國家」건설

창의력이 뛰어난 국가를 건

이 글은 지난 1월 26일 과학기술처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다.……〈편집자註〉

설하기 위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기초연구활성화는 물론 인재양성을 위한 시책을 문교부와 협조아래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날로 가중되고 있는 기술보호장벽을 극복하고 원천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독자적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9년을 “기초연구진흥의 원년”으로 하여 전국 3만5천여 自然系·工業系 大學人の 방대한 잠재력을 창조적 연구에너지로 활성화시켜 번영의 활력으로 흡수할 계획이다.

먼저 기초연구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대학연구의 본격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비는 1988년 213억원에서 1989년에는 366억원으로 대폭증액하고, 연구전담교수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대학내 우수연구집단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基礎研究支援센터」를 통하여 최첨단 대형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基礎研究育成法」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財源확보와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自然系·理工系대학원과 韓國科學技術院등 政府出捐研究所 및 民間研究所를 상호연계시켜 우수과학두뇌를 양성·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全國大學院 碩·博士課程 학생을 관련 출연연구소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민간의社內技術大學院을 설립하도록 유도하여 산업계

인력수요에 부응토록하며, 주요 국토권역별로 예컨대, 중부권에 科學技術大學, 영남권에 浦項工大, 호남권에 一流工科學大學 등과 같은 연구중심大學을 육성하여 탁월성있는 先導群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 「미래를 개척하는 民族」이 되기 위하여

10년 앞을 내다보는 國策研究개발사업 추진

국제화에 부응한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복지화를 지향한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의 고도화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아래 고도정보화사회의 구현, 풍요로운 삶의 실현, 권력신장에의 부응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고도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전자·정보기술의 고도화사업은 세계 최정상에 도전하는 16/64메가 디램 반도체 개발에 목표를 두어 추진하는 한편 21세기에 있어서 선진국의 순위를 가름할 인공지능형 컴퓨터의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풍요로운 삶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생명과학기술의 실용화와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약공해·난치병등을 해소할 복지관련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비한 원자력과 대체 에너지기술의 자립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국력신장에 부응」하기 위하여 항공·우주·해양 등 거대 과학기술에 도전하여 단거리 이착륙기(STOL기), 과학위성등을 개발하는 한편 태평양심해저 자원을 탐사함과 아울러 재래소재를 대체할 첨단신소재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의 창조정신 고취

청소년 과학사업을 전개하여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진취적 기상을 진작시켜 왕성한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주소년단」을 1989년 상반기중에 사단법인형태로 창단하고, 청소년의 창조적 과학정신과 개척심을 함양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해양소년단등 기존 청소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범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세계적 기구(YAI:미·소·일등 29개국)와 연계하여 국제교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첨단과학기술관」을 1991년 설치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과학기술과 상품교역 및 문화예술이 조화된 세계의 축제가될 국제박람회 개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자정보·첨단신소재·항공·생명과학 등 분야별 전시관을 설치·운영하며, 과학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미래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

킨다는 계획이다.

「보통사람이 잘사는 사회」의 구현

보통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고임금 및 원화절상을 극복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상공부와 협조아래 추진하고, 다음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 복지기술의 개발사업을 보사부등과 협조아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高賃金·원貨절상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촉진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현재 민정당에서 입법추진중인 「中小企業構造調整促進法」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전산화 사업, 자동화 사업, 기술집약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산화 사업으로는 컴퓨터의 보급·활용과 범용 S/W 개발 및 확산으로 생산공정과 기업경영에서의 원가절감을 실현함과 아울러 올림픽 전산업무를 수행한 「시스템공학센터」를 개편 활용 한다는 계획이다.

자동화사업으로는 자동화기계 및 고속조립용로봇을 집중적으로 개발·보급하여 생산성 제고와 품질 균일화를 추구하고, 기계연구소내에 「自動化技術支援團」을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집약화 사업으로는 기존 기업기술고도화 기술집약형 신기업창출 지원을 위해 1989년

에 1,050억원으로 기술개발(주) 등 기술지원자금 공급을 확대 투입함과 아울러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신속히 기업화로 연결기시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복지 기술개발사업

특별복지기술 개발사업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 「3개년 特別計劃(1989~1991)」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건·환경분야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간염·탄광진폐증 등 난치병진단치료를 위한 기초기술과 인공신장 및 보청기등 장애자를 위한 재활기기를 개발하며, 아울러 상하수도 정화는 물론 수질오염개선을 위한 기초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人類共榮을 추구하는 세계」의 실현

인류공영을 추구하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외마찰을 해소할 새로운 차원의 국제기술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북방정책의 선도적 교두보로서의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우주첨단기술올림픽의 개최를추진한다는 것이다.

對外障壁을 解消할 새로운 차원의 國際協力 추진

우리의 제일 목표인 교역대상국이자 세계 최대의 원천기술 보유국인 미국과의 과학기술협력확대를 韓·美頂上外交

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수지흑자 여유분을 활용하여 첨단·고가의 과학장비 및 연구기자재의 구매를 확대하고, 첨단분야 현지중소기업 및 연구소예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韓·美研究共同體(K-A Line) 형성을 위해 미 국방성의 전략방위계획(SDI)등 거대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저명 대학에 14개의 공학연구센터(ERC)와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FX생산·단거리이착륙기의 개발 및 우주연구발사체연구등을 위한 한·미항공기술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협력의 다변화를위해 일본 및 구라파등과 기술특성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北方政策의 先導的 교두보로서의 과학기술협력 확대

이념과 체제의 벽을 넘는 과학기술교류를 촉진함으로써 南北韓의 同質性회복과 東西障壁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77선언」정신에 입각한 남북한 科學長官會談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회의의 의제로는 •비무장지대 생태계조사등 상호관심분야의 공동연구사업의 추진 •과학기술용어사전 공동편찬 등 통일변영의 시대를 위한 사전대비 •남북학술회의 공동개최 및 상호방문과 과학기술인 교류를 촉진 한다는 방침아래 統一院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금년 상반기에 제안하고, 년내에 회의개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른한편 소련·중국·동구권 등 북방 국가와의 기술협력을 전개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상호협약의중인 헝가리와의 과학기술협정을 금년내에 체결하도록 추진하고,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전산·약물검사·기상기술등을 1990년 북경 아세안게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중국·소련등 주변국가와의 東·西해안 자원, 환경등 상호관심분야의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宇宙올림픽개최 추진

'88 서울올림픽에서 이룩한 동서화합과 국민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주공간의 인류평화적 이용”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1990년대 중반에 「SPACE TECHNOLYMPIC」을 개최함으로써 우주기술에 복합된 정보통신·신소재 등 첨단기술을 조기획득하고 이를 국내산업에 보급활용함은 물론 동서 우주개발경쟁을 인류미래를 위한 협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년 9월 예정인 「한·미·소 우주포포지움」의 개최를 계기로 미국과 소련의 동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영·독·불·일·중 등의 참가를 적극 유도하고, 1989년 항공우주연구소를 설립하여 관련기술개발의 구심체로 육성하며, 앞으로 개최예정인 국제박람회를 사전준비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다.

이를 위해 관련학회·기업연구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組織委員會」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安定成長·福祉社會·和合經濟·均衡發展」

全國土의 「技術地帶網 (TECHNO-BELT)」 구상추진

국토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전국의 기술·두뇌·산업·교육·문화를 교통망과 정보통신망으로 상호 유기화시켜 전국토를 기술지대화함으로써 전국 곳곳에서 과학기술혁신이 확산되도록 하고, 성장과실의 공정배분과 소득의 균형을 촉진하며, 특정 지역의 편중개발과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수도권 중심에서의 탈피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계획이다.

제1단계로 기존 연구단지를 활성화하여 중요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서울 흥릉단지, 대덕단지, 광주 첨단단지, 수원·안성지역, 포항·울산지역 등을 중심으로 거점지역을 개발 육성할 계획이다.

제2단계로 이들 연구단지외 고속도로, 지역경제 등을 상호연계 확산시켜 전국토의 기술지대망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조성 추진할 계획이다.

1989년에는 21세기를 향한

전국적 기술지대망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 방향을 설정하며, 1990년 이후부터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조와 민간의 참여하에 일관성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國家科學技術체제의 發展的 개편

첫째로 제6공화국의 과학기술정책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헌법 127조에 근거한 「大統領科學技術諮問會議」를 각계 대표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과학기술정책의 유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위원회의 정부기능 개편작업과 관련,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정책수립·총괄조정기능을 실효화 한다는 계획이다.

세째로 정책형성의 민주화와 합리화를 위하여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를 5백만 과학기술인·단체의 총합적조직으로 육성하고 범과학기술계 여론수렴을 위한 구심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네째로 첨단과학기술과 정보산업이 날로 발전하는 시대에 대응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과 아울러 체신부·상공부 등과 협조하여 정보화사회촉진법등을 제정하여 입법적 뒷받침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産學協同財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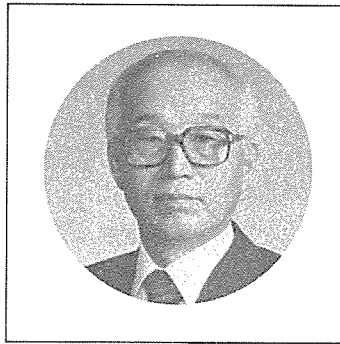
“産學間연계강화 및 協同結果효용증대”

1989년은 太平洋時代의 개막과 함께 세계속의 先進韓國으로 跳躍하는 해가 될 것이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하여 國際社會에서의 지위향상과 東歐圈과의 關係改善 및 교역확대 등 政治, 外交 및 經濟, 社會的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다가오는 2,000년대의 國家, 社會發展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先進化와 이에 따른 産學協同 활성화의 필요성이 날로 심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그동안 産學協同財團은 低金利金融政策으로 인하여 果實收入이 漸減되어 사업비 규모를 축소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近年에 들어 基金形態를 轉換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자금의 운영방법을 모색하여 果實收入도 점차 늘어가게 되었다. 이제 1989년을 맞아서 財團에서는 지난 15년간의 事業成果를 토대로 하여 제2의 새로운 跳躍의 기틀을 다져 나아



南 惠 祐 이사장

갈 계획이다.

따라서 모든 支援事業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産學協同에 역점을 둘 것이며, 産業界의 적극적인 研究參與와 大學의 研究活動이 활성화되는데 촉매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며, 量·質을 갖춘 高級人力 養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아래 學術研究費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分擔資金制度(Matching fund System)을 계속해서 장려함과 동시에 學界와 産業界와의 협동연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産學協同體制에 이바지할 것이며, 學術活動支援事業의 일환으로 東歐

圈을 포함한 汎世界的인 시장 확대 등 무역진흥 및 산업발전, 國家安保問題와 노사문제, 지적소유권관계 등의 각종 學術會議事業 및 學會誌 발간사업에 補助 支援함으로써 學際間(Interdisciplinary) 發展에 이바지할 것이며, 獎學金 지원사업은 개인별 年間登錄金 全額을 지원함으로써 더욱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國際交流活動支援事業은 경제 및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산업발전과 무역증진에 기여하고, 國際的 地位向上에 공헌할 계획이다.

財團의 금년도 事業方針은 ①事業費는 收入의 增加를 勸案하여, 前年度 對比 約 40%를 增額하도록 하고, ②모든 사업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産學協同과의 관련도에 역점을 두도록 하며, 分擔資金制度(Matching fund System)을 장려하고, 특히 産業界와 學界와의 協동연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

기로 하며, ③資金の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많은 果實收入을 올리도록 하고, ④事務費는 最大限 縮小運用토록 할 방침이다.

財團의 금년도 주요사업은 1989년도 基金의 果實, 事業收益등을 약23억원으로 예상하고 收入豫想額中 사업비와 次期移越金등을 제외한 14억5천만원(예비비 5천만원포함)을 사업비 충당가용자원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學術研究 및 開發研究支援

一般研究費 지원에 있어서는 무역 및 산업계에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研究課題中 당財團 학술연구비 運用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指定課題」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前年度 지원방식에 준하되 產業界에서 추천된 「指定課題」에 대하여는 추천한 企業體에서 分擔資金(Matching fund)을 분담토록 하며 其他課題에 대하여도 Matching fund로 신청된 研究課題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모든 연구에 있어 질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選拔支給基準으로는 다음에 의한다.

①研究費 支援金額의 계열별 지급비율은 가능한 한 人文社會系 對 自然科學系, 약 30%대 70%비율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指定課題」中에서 신청한 研究計劃書中 연구추진 능력이 가장 우수한 產業界와 學

界와의 협동연구과제를 우선으로 선발하며, ③전②항의 「指定課題」를 지원하고 나머지 可用財源의 범위내에서 기타 自由課題中 Matching fund로 신청된 研究課題를 우선적으로 선발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 獎學事業 및 研修活動 支援

獎學事業은 產業社會가 요구하는 우수한 高級頭腦의 양성을 목표로 하여 ①支給範圍는 4年制大學 및 綜合大學校 大學院에서 自然科學 및 社會科學中 經商系列 學問을 專攻하는 學生으로 하고, ②支給對象은 勤勞者의 子女로서 學業成績이 우수하거나 他獎學金이나 이와 유사한 學費減免惠澤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하며, ③選拔基準은 大學生의 경우에 獨立單科大學에서 1명, 綜合大學校에서 2명으로 하고, 계속 獎學生制의 정착을 위하여 1988년도 獎學生中 계속支給該當者를 優先選拔하며 大學院生의 경우에 綜合大學校 一般大學院의 碩士課程中 1명 및 博士課程中 1명으로 하고, ④1인당 年間支給額은 1989학년도 個人別 年間登錄金 全額으로 하며, 學期別로 나누어 2회에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 學會 및 研究團體 支援

學會 및 研究團體의 會誌發刊 보조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문발전과 學會發展 育成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自然科學分野의 경우에는 國庫補助

를 받는 學會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되어있다.

#### 學術大會, 講座 등의 開催 또는 參加支援

學術大會, 講座 등의 개최에 있어서도 貿易振興, 國家安保問題, 노사문제 등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업을 지원하되, 계획된 사업이 國際間的 공동주최인 경우이거나, 學際間(Interdisciplinary)의 연구내용을 토의하는 경우로서 타 기관으로부터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와 自體豫算으로서 상당한 금액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이다.

#### 國際交流活動 支援

國際交流活動支援事業은 현실적으로 經濟協力 및 貿易增進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其他 產學協同活動 支援

財團에서 主管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여 ①產學協同賞 施賞 ②產學協同懇談會 ③產學協同誌 發刊 ④文教部主管事業支援 ⑤獎學法人協議會支援 ⑥其他 產業協同活動으로 獎學生 輸出品 生産業體見學團派遣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 편찬사업비 지원 · 재단설립 15주년기념 「산학협동심포지움」 개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韓國科學技術振興財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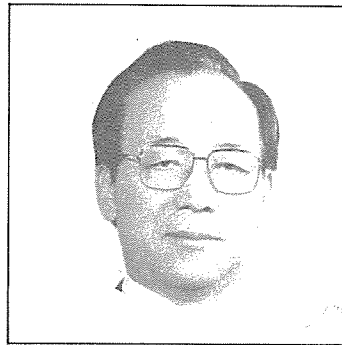
科學文化의 창달에 先導役割

韓國科學技術振興財團(理事長 金基衡)은 1967년에 한국 과학기술후원회로 설립이되어 1972년에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동안 靑少年 科學化사업과 국민생활의 科學化 사업을 주축으로한 과학계몽 및 풍토조성사업에 주안을 두고 全國初·中·高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사업확충에 노력하여 왔다.

發足 당시부터 지금까지는 財團의 「基盤 造成期」라 할 수 있으며 다가오는 1990년대에는 「跳躍期」로서의 꿈을 안고 科學文化 暢達의 先導적 역할을 다할 계획으로 의욕을 가다듬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금년은 •청소년 과학화 사업의 본격화 •과학영화 및 도서출판 개발보급 지원 •국민 생활의 과학화 촉진 •과학문화창달의 주역으로서의 미래의 비전설정과 이의 단계적 추진등과 같은 기존 사업을 효율성 있게 확충하면서



金基衡 이사장

도약의 비전을 정립하고 그 발판을 구축할 계획이다.

靑少年 科學化 사업

靑少年 科學競進大會 확충 : 2000년대에는 기필코 선진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발전의 근간이 되는 고급두뇌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과학하는 마음과 정신을 불러 넣어 주어야 하겠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컴퓨터경진대회 및 모형항공기 공

작경진대회, 모형자동차 조립 등 각종 경진대회를 갖는 것은 직접 공작함으로써 이론과 실기를 터득케 하고 설계등을 이해하여 탐구능력을 길러주는 데 뜻이 있다고 하겠다.

1988년에는 1천2백만명의 청소년들이 참여 : 지난 1988년도에는 모형항공기 공작등 10개 종목에 참여한 전국의 청소년들이 연인원 1천2백만명이나 참여하였다.

따라서 금년에는 청소년 과학경진대회를 자율적으로 더욱 확충해 나아갈 계획이다.

競進大會에 기대되는 효과 : 과학경진대회에 대한 참여도가 계속 점증하고 있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과학기술교육 효과를 올리고 있으며, 양질의 과학교재가 실기교육에 널리 보급되고 있어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다.

각종 과학기자재의 국내 생산품이 조약하여 고가로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던 것이 이제는 대량 소모됨에 따라 생산의 기계화는 물론 양질의 제

품이 경쟁적으로 생산되고 있고, 국내수요를 충족함은 물론 외국에도 대량 수출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꾸준히 실시해온 경진대회의 효과로서 평가되고 있다.

科學映畵 및 도서출판  
보급지원

선진국의 최신 우수 과학영화를 구입, 번역 더빙하여 각 급학교 산업체 연수원 및 일반 대중에게 상영해주어 과학기술이 국가사회발전의 근간이 됨은 물론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 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동 과학차(Science Car)는 특수한 장비와 현대식 시설 및 우수하고 다양한 실험실습 자료를 가지고 벽지 국민 학교를 찾아 순회 지도하고 있는데, 현재 343개교와 48회의 여름학교 지원등 이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가 16만명이었다.

금년에는 과학차를 1대 더



과학경진대회 시상식 장면

증차하여 3대가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분담하여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기초 과학문고 30여종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문물의 혜택이 적고 기초과학문고가 시약한 벽지 및 낙도 학교에 과학문고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벽지 및 낙도 청소년들에게도 도심지의 청소년들과 같이 과학서적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國民 生活의 科學化 촉진

첫째로 전국민에 대한 과학화 확산효과가 지대한 과학영화 필름 라이브러리는 각 기업체 공공기관등에 300회에 걸쳐 대여 및 출장상영할 계획이다.

둘째로 생활의 과학화에 대한 계몽교육을 포함해서 2000년대 과학기술의 발전 추이와 이에 대응하는 과학대중화 운동의 전개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째로 첨단과학분야의 국제적 추세와 과학 기술인으로서의 보람과 성공담에 대한 지역 순회 과학강연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네째로 1만8천 여종의 연구개발용 시약을 450여기관에 신속하게 공급하여 연구 능력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희귀시약은 물론 우수한 품질과 정확한 규격의 시약을 국공립 연구소와 각급 교육기관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과학기술



모형배행기 공작 경진대회 장면



연구개발 및 교육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의 비전설정과 의욕적인 추진

과학기술시대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슬기롭게 적응하고 민족적 잠재력을 창조적 과학문화로 승화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韓國科學技術振興財團이 구심체 역할을 함으로써 활기에 넘치는 과학공간과 文化의 場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전있는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科學文化 창달을 위한 政策機能과 研究機能 확충 : • 살아있는 科學教育의 振作方案研究 • 國民의 科學文化에 대한 인식과 生活속의 科學化 調査研究, • 情報化 時代에 대처한 靑少年 科學教育 指導研究등을 위해 政策·開發研究 부서를 설치하여 소수의 정예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또한 정책연구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획이다.

電算室운영과 데이터 베이스화 : 전국의 국민학교 6,531개교, 중·고등학교 4,048개교 대학교 103개교에 대한 기본통계자료를 전산화해서 科學技術振興 및 계몽지도업무에 활용하고, 또한 1만 8천여종의 시약에 대한 공급 및 재고 파악에 활용할 계획이다

産·學·研 協同事業 : 産業界와 연계 협의하여 한강 고수부지에 4개소의 科學公園을 설치운영하고, 大學 및 研究所와 연계하여 科學文化 창달을 위

한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생산공장 및 연구소 견학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청소년관련 과학협력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을 위한 과학의 도량 마련 :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과학기술교육 지도를 위한 充分한 科學教育 및 文化의 공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年中 과학영화의 상영, 과학실험기자재, 과학문고의 전시 보급, 실험실습교육장의 마련, 과학강연과 과학축제적성격의 경진대회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각종 科學行事에의 적극참여 : 그리고 금년부터 政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의 창조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宇宙靑少年團」 사업과 「宇宙尖端技術 올림픽」 개최, 大德研究團地에서 개최할 國際貿易박람회의 「尖端科學技術館」과 「尖端科學技術用語사전」 편찬사업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1988년도 과학경진대회 경진 종목별 참가자 현황

種 目	對 象	參加人員	開催日字	備 考
模型航空機工作競進	初·中學生	866,737	88. 10. 30	全國大會
科學箱子組立競進	〃	306,985	〃	〃
模型自動車競進	〃	10,890	〃	〃
라디오組立競進	〃	119,187	〃	〃
科學상상그림그리기	〃	2,276,034	市道別	市道大會
未來科學글짓기	〃	2,313,111	〃	〃
科學實驗競演	〃	443,549	〃	〃
산수 / 數學경시	〃	2,170,918	〃	〃
科學讀後感쓰기	〃	2,952,106	〃	〃
퍼스널컴퓨터競進	初·中·高學生 및 一 般	11,797	88. 4. 24	市道豫選會
			88. 5. 29	全國大會
計		11,971,314		